



보도자료  
즉시보도용  
July 12, 2010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20431 USA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IMF 총재 개막연설>  
'세계 경제의 선도적 역할',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칸 IMF 총재는 12일 대전에서 열린 '아시아 21' 고위급 컨퍼런스 개막연설에서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아시아의 경제 실적이 의미 있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아시아가 최근 전지구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동력(powerhouse)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간 수행된 거시경제, 금융, 기업 부문의 개혁은 이 지역이 강한 활력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따라서 애초의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세계 금융 위기로부터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IMF는 지난 주에 올해 세계 성장전망율이 4.5퍼센트인데 비해 아시아는 7.75퍼센트라는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그는 또한 세계 경제 정책들을 조율하는데 있어서도 아시아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아시아의 여섯 나라가 소속되어 있는 G-20에서 아시아의 역할을 강조했다. 스트라우스-칸 총재는 "아시아 경제의 국제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계 다른 나라들의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의 역할(stake)도 또한 높아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경제위기 대처 과정에서 국제적 공조가 얼마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IMF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추가적인 국제적 정책공조를 통해 아시아는 앞으로 5년간 미화 약 2500억 달러 정도의 GDP 성장과 약 14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의 강력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스트라우스-칸 총재는 최근의 유럽에서의 혼란과 같은 위험 요소(downside risks)들을 감안할 때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충격에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산이나 신용(credit)의 거품(bubbles), 경기과열의 위험, 자본유입의 가파른 회복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정책 이슈는 아시아가 국내의 투자와 소비를 어떻게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스트라우스-칸 총재는 이를 ‘아시아 성장의 두 번째 엔진’이라고 표현했다. 과거에는 이 지역의 성장이 주로 수출에 기대고 있었지만, 그 주된 교역 파트너였던 미국과 유럽이 장기 저성장 시대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는 국내 수요를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스트라우스-칸 총재는 ‘성장의 두 번째 엔진’을 조성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변화들이 이 지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변화에는 강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개인의 예방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s)의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개인적 소비를 장려하며, 공공기반시설을 늘이고 개인투자를 촉진하며, 환율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포함된다.

스트라우스-칸 총재는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의 떠오르는 역할이 아시아의 발언권, 대표성 확대라는 방식으로 IMF를 비롯한 세계금융 체계 (architecture) 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IMF에서 2008년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통해 아시아의 투표권을 확대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2010년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투표권 확대의) 두 번째 단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개혁을 통해 아시아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합당한 대표권을 IMF에서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MF가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아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재정적 위험에 대한 IMF의 분석 개선, 국제적 정책 공조의 촉진, 세계 금융 안정망의 강화라는 세가지 영역에서 IMF가 아시아에 특별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트라우스-칸 총재는 마지막으로 “세계의 나라들은 아시아가 어떻게 성장과 세계화를 이토록 성공적으로 이뤘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아시아의 수많은 성공사례들의 교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이번 컨퍼런스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